



ISSUE BRIEFING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스포츠도시 육성’ 국정과제 대응

연구책임 장세길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이슈브리핑
2022. 07. 19 vol.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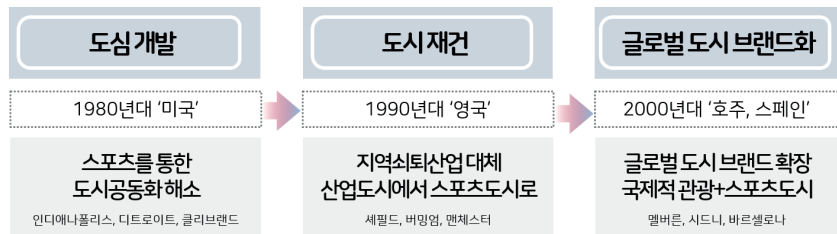
1. 스포츠도시 개념과 사례

(1) 스포츠도시 개념

■ 스포츠도시 등장 배경¹⁾

- 1980년대 미국에서 도시 외연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스포츠를 통한 도시 재개발 전략이 제안됨. 인디애나 폴리스,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등에서 “스포츠를 통한 도심개발”이 추진됨
- 1990년대 영국에서는 과거 제조업 중심이었던 지역산업이 쇠퇴하자 스포츠 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 산업, 즉 창조사업으로 발굴하여 스포츠도시를 육성함. 셰필드, 버밍엄, 맨체스터 등이 “산업도시에서 스포츠도시로” 전환을 꾀함
- 미국에서 “도심 개발” 목적으로, 영국에서 “도시 재건” 목적으로 스포츠 도시가 등장하였다면, 호주와 스페인 같은 국가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글로벌 도시의 브랜드화” 목적에서 스포츠도시를 도입함. 멜버른, 시드니,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가 국제적 관광에 스포츠 도시 전략을 더하여 성과를 거둠

[그림1] 스포츠도시 등장 배경과 흐름



자료: 전북연구원 세미나자료(김상훈 발표) 참조

■ 스포츠도시의 개념

- 유럽 스포츠도시협회(ACCESS)는 인구 규모에 따라 스포츠수도(Sport Capitals, 50만 명 이상), 스포츠도시(Sport Cities, 2만5천 명~50만 명), 스포츠타운(Sport Towns, 2만5천 명 미만)으로 구분하고, 2001년부터 유럽 스포츠수도를 지정함
- 우리나라에서 스포츠도시 개념은 도심 개발·재건 목적보다 ‘도시브랜드’ 전략으로 이해됨.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도시, 주요 스포츠 기업이나 조직이 위치한 도시, 모든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 효과적으로 개발되어 있고 스포츠 참여율이 높은 도시”(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5: 8)를 스포츠도시로 볼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도시마케팅과 관련한 지역브랜드로 스포츠도시 육성전략을 추진함

1) 이 내용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15)의 「스포츠도시 선정 평가지표 개발 연구」 내용과 전북연구원 2022 국책사업 발굴 관련 정책세미나 자료(김상훈,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전략')를 참조하였음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스포츠도시 육성' 국정과제 대응

- 정부가 추진하였던 '스포츠도시 사업'(2016)은 특정 스포츠 분야를 특화하여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브랜드를 형성하고 지역발전에 연계되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스포츠도시를 “차별화된 스포츠 분야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기반을 갖추고 도시브랜드화 함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스포츠 기반을 제고할 수 있는 도시”(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5: 9)로 정의함

(2) 스포츠도시 사례

- 스포츠로 도심 공동화를 극복한 사례, 낙후된 산업을 대체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스포츠에서 찾은 사례, 기존 관광도시가 스포츠를 더해 글로벌 도시 브랜드로 확장한 국외 사례를 살펴봄

주요 사례	주요 특징
미국 인디애나 폴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도심 공동화를 스포츠로 극복 • (사업)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마추어스포츠 특화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 관련 전담조직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 (성과) 24개 스포츠단체 본부 입지, 1979년 이후 400회 이상 아마추어 이벤트 개최, 자동차 경주 및 모터스포츠 성지화, 스포츠-엔터테인먼트-문화가 연계된 클러스터 구축
영국 셰필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쇠퇴한 철강산업을 대체하는 성장동력 • (사업) 스포츠대회 유치, 4대 레저스포츠(걷기, 달리기, 등산, 자전거) 종목 이벤트, 스포츠시설 운영 시스템 구축, 도시 전체의 발전 전략으로서 스포츠산업 육성 전략 추진 • (성과) 1991년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등 1990년대 300개 이상 스포츠 이벤트 개최
호주 멜버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관광+문화이벤트 융합, 브랜드 확장 • (사업) 하계올림픽 개최 스포츠유산과 기존 스포츠 인프라 활용. 도시계획과 재개발의 핵심과제로 추진 • (성과) 호주오픈, 포뮬러1 등 개최로 국제적 스포츠도시로 브랜드 확산. 매년 스포츠이벤트 통해 10억 호주달러 이상 경제효과 창출
뉴질랜드 퀸스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레저스포츠를 집적화하여 관광효과 극대화 • (사업) 레저스포츠 클러스터: 곤돌라, 루지, MTB, 하이킹, 전망대, 레스토랑/기념품가게, 별보기 이벤트 등을 걸어서 5분 거리에 집적 • (성과) 15,000명 주민, 290만 명(2015) 관광객 방문. 410여 개 레저스포츠 관광상품 운영

자료: 전복연구원 세미나자료(김상훈 발표) 참조

[표1] 스포츠도시 국외 사례

2. 국정과제로서 스포츠도시 계획

(1) 스포츠 분야 국정과제

■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스포츠도시

- 스포츠 분야 국정과제는 스포츠 저변 확대, 전문체육 지원강화,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네 가지 세부 과제를 계획함

[표2] 스포츠 분야 국정과제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스포츠 기본권 보장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	생애주기 스포츠 활동을 촘촘하게 지원,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 제공, 체육인이 참여하는 스포츠정책 거버넌스 구축
체육인 복지 강화로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세계 일류의 국가대표 지원체계 확립, 국민에게 사랑받는 전문체육 환경 조성, 체육인 복지 및 권익 강화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공공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지역특화 스포츠 신산업 육성
국제 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국제스포츠 인재양성으로 글로벌 리더십 선도, 메가 스포츠 이벤트 성공 개최와 신규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기반 강화

- 국정과제 주요 목표인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지역 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이 포함됨. 이 과제의 세부 사업은 국제규격의 전문체육시설 건립과 개보수 지원, 스포츠시설 중심 관광환경 조성, 지역특화 스포츠 기업 연계, 국제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임
- 지역특화 스포츠 신산업 육성의 세부 과제는 스포츠 R&D 확대로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강소 스포츠 기업 육성임. 스포츠산업 육성이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지자체가 관심을 가질 국정과제는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과 공공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에 포함된 “노후 스포츠 시설 리모델링으로 지역 랜드마크화”임. 특히 스포츠도시 육성은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에 대한 세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1차 도시 지정(강릉시, 서귀포시)에 그쳤던 스포츠도시 지정사업(스포노믹스)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기존 사업내용을 토대로 향후 추진계획을 전망하고 지역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2016년 스포노믹스 사업개요와 신규사업 전망

■ 스포노믹스(Sponomics) 육성 사업(2016~2018)

-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영국 셰필드, 버밍엄, 맨체스터 등을 참조하여, 수도권 이외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정부가 스포츠에 대한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스포츠와 도시가 동반 성장하는 스포츠도시를 통해 스포노믹스를 실현 하겠다는 전략임
- 2016년에 지정대상 162개 시·군·구(서울, 인천, 경기 제외) 중 3단계 선정 과정을 거쳐 강원도 강릉시와 제주도 서귀포시가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됨. 도시당 3년 간 최대 60억 원(국비 50%)이 지원됨
- 스포노믹스 육성 사업에서는 정부지원금이 투입되는 필수사업과 지방비로 추진하는 선택 추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됨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스포츠도시 육성' 국정과제 대응

- 필수사업을 보면, 스포츠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컨설팅, 스포츠협의회 조직 및 운영,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 스포츠 참여 활성화와 외부 방문객 방문 촉진 프로그램 개발, 스포츠도시 브랜드 정립 통합마케팅 활동, 지역 스포츠 융·복합 상품 개발 및 상품화, 스포츠도시 브랜드 활용 신규 수익사업 개발, 스포츠 이벤트 개최 및 정례화 추진임

구분	주요내용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경쟁력 및 지역스포츠 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 컨설팅, 스포츠전문 추진기관 구성 및 체육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스포츠 중심적 도시브랜드 구축 - 스포츠 도시마케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유관 스포츠산업 개발을 촉진하는 중소도시의 지속가능발전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도시재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와 도시가 동반성장하는 스포노믹스 모델 개발 및 육성 - 차별화된 스포츠 분야를 발굴하고 클럽 활성화 및 다양한 전문가 활용 등 지역사회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향상 및 지역 스포츠기반 육성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기간 3년(2016년~2018년) : 지정도시 당 3년(2년+1년) - 1차년도 사업기간 : 2017.01~2017.10 						
시행도시	- 2개 도시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20억원(2개 도시×60억원) : 도시 당 3년간 최대 60억원 지원 - 1차년도 사업비 : 20억원(2개 도시×10억원)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도시를 통한 스포노믹스 육성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3단계로 선별하여 지정 <div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10px;"> <tr><td>1단계</td></tr><tr><td>인구수 기준</td></tr></table>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right: 10px;"> <tr><td>2단계</td></tr><tr><td>국제 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 유무</td></tr></table>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tr><td>3단계</td></tr><tr><td>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보급률</td></tr></tabl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_도시규모] 인구 5만 이상~50만 미만 거주 중소도시 * [2단계_국제 스포츠이벤트개최] 최근 5년 이내, 「국제 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범위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 혹은 「동·하계올림픽 정식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거나 향후 개최 예정인 도시 * [3단계_스포츠인프라 구축 및 보급률] 도시 내 공공체육시설 면적 13만㎡ 이상 보유하고 있고,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0.6㎡ 이상 충족하는 도시를 후보로 선정 	1단계	인구수 기준	2단계	국제 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 유무	3단계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보급률
1단계							
인구수 기준							
2단계							
국제 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 유무							
3단계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보급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8) 「스포츠산업백서」참조

[표3] 스포노믹스 육성 사업 선정 개요(2016년)

지정도시	사업명	세부 사업
강원도 강릉시	빙상스포츠 도시 조성 및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교1빙상 특기적성사업 등 빙상인구 10만 울곡프로젝트 - 강릉시장기 컬링대회 개최 - 강릉빙상스포츠축제 개최 - 강릉스포츠관광진흥협회 조직 및 운영 - 동계스포테인먼트 인재양성아카데미 설치 운영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시 글로벌 축구도시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구육성센터 조성사업 - 유소년축구클럽 활성화 사업 - 스포에듀테인먼트사업(다국어축구대회 개최) - 한중일 국제축구대회 개최 - 유럽명문구단 초청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개최 - 찾아가는 축구특강 운영 - 실버/여성 축구캠프 운영

[표4]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선정도시와 세부 사업

■ 윤석열 정부의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

- 한국 스포츠도시가 참조한 유럽 스포츠수도는 모든 스포츠를 대상으로 추진되나 한국에서는 도시별 특화 종목을 중심으로 특화 발전전략을 추진함 (강릉-빙상, 서귀포-축구). 현 정부 사업에서도 이러한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정과제 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 5개 도시를 지정하는데, 3년 차 중간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지원할 계획임. 지원 예산은 도시 당 연간 최대 50억 원 규모(국비 50%)로 전망됨. 2023년 지정도시를 선정하되, 2023년에는 육성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치고,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는 2024년으로 예상됨
- 구체적인 지정도시 선정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2016년 사업을 참조하면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 5만 명 이상~50만 명 미만 시·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됨(본 사업의 정책목표가 균형발전이므로 수도권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선정기준도 이전 사업과 비슷할 것으로 보임

3. 스포츠도시 육성에 대한 전북의 과제

(1) 도시발전전략으로서 스포츠도시 구상

■ 스포츠복지에서 스포츠산업으로: 스포츠산업 종합전략 마련

- 전라북도에서는 2012년부터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하면서 핵심 분야로 체육 복지를 실행함. 문화복지와 더불어 전라북도는 체육복지가 일상화된 대표 도시가 됨
- 산업 측면에서는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는 성과가 컸으나, 지역발전과 연계 하는 스포츠산업 전략이 활성화되지는 못하였음
- 전라북도 체육진흥정책 주요 사업은 전문체육 우수선수 발굴 등 전북스포츠 위상 제고, 체육복지 실현, 국제태권도대회 개최 등임. 스포츠산업 관련 국가추진사업에도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참여가 많지 않음. 예를 들어, 스포노믹스 사업뿐 아니라,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에도 일부 지역만이 사업에 참여함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스포츠도시 육성' 국정과제 대응

연도	선정도시와 주제
2015	제천시(힐링레포츠), 순천시(SPO-TOUR), 영월군(레포츠), 청주시(힐링투어)
2016	전주시(드론축구), 고성군(바이크 어드벤처), 청송군(아이스 클라이밍)
2017	예천군(할 테마), 삼척시(치어업)
2018	밀양시(요가), 기장군(야구), 보은군(육상)
2019	양평군(바이크 파크), 평창군(동계올림픽유산), 하동군(드론스포츠)
2020	부산 수영구(해양스포츠), 부여군(카누)
2021	영덕군(풋볼트립), 포항시(해양스포츠), 고창군(숲스포츠)
2022	울주군(트레일페스타), 부안군(해양레포츠), 신안군(스포츠축제), 단양군(수상스포츠)

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와 웹에서 검색한 뉴스를 참조하여 정리함

- 전라북도 스포츠정책의 강점인 스포츠복지에 이어, 스포츠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스포츠산업을 주요 도정으로 반영하고, 활발한 정책·사업 발굴이 필요함

■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스포츠도시 육성) 계획 수립과 방향

- 스포츠도시는 스포츠로 도시를 바꾸고, 스포츠로 도시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발전전략임. 이러한 전략은 종합 계획이 필요하고,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예비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이 국가공모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함
- 이미 많은 도시가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거나, 스포츠 도시로서 브랜드를 정립함. 예를 들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대구는 육상의 도시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광주는 수영의 도시로, 평창과 함께 강릉은 동계스포츠의 도시로, 서귀포는 축구의 도시로, 예천군은 육상 전지훈련장의 메카로 불림. 이 외에도 밀양시 같은 도시는 '스마트 스포츠 도시'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 전라북도 차원에서 스포츠산업 육성 종합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시군별로 스포츠도시를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정과제(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에 대응하여야 함
- 스포츠도시 육성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 비전으로서 스포츠도시를 설정해야 함. 이 사업은 명확하게 스포츠산업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스포츠 기본권에 따른 스포츠복지보다 스포츠를 통한 경제적 효과 특히 지역 브랜드를 통한 도시마케팅 효과가 중요하게 담겨야 함
- 국정과제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핵심 스포츠 종목을 발굴하고 이를 진흥하는 전략이 필요함. 또한, 정부 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 주도로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역 주도성,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함

[표5]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사업 선정 도시

[그림2] 지역 특화 스포츠 대표
종목 사례

(2) 국정과제에 대한 선제 대응

■ 스포츠도시 선정기준에 따른 시군별 적합성 파악

- 2016년 ‘스포노믹스’ 육성사업에서 스포츠도시를 선정한 기준을 참조하여 전라북도 시군의 적합성과 경쟁력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사업의 선정기준 1단계는 인구 5만 ~ 50만 명 미만으로, 전라북도에서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 완주, 고창, 부안이 포함됨 (전주는 인구 50만 명 이상, 다른 지역은 인구 5만 명 미만임)
- 2단계 선정기준은 국제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 유무임. 구체적으로 최근 5년 이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범위의 국제스포츠 이벤트 혹은 동·하계올림픽 정식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거나 개최 예정인 도시를 말함
- 전라북도 관련 국제규모 스포츠 이벤트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제3항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와 제4항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임.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서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종목별 경기가 열리므로 14개 시군 모두 2단계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국제 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의 국제경기대회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1.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3.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4.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 아태마스터스대회가 2단계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역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타 국제 스포츠대회 등의 개최 실적을 더 파악하고, 특히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종목을 특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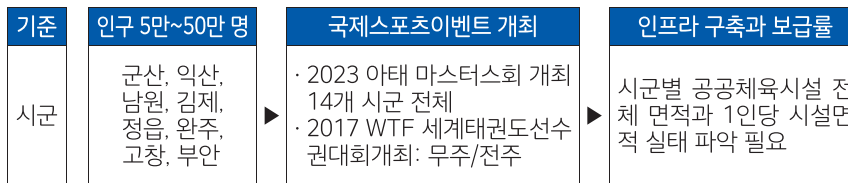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스포츠도시 육성' 국정과제 대응

시군	아태 마스터스대회의 개최 종목	(참고자료) 시군별 국제스포츠대회
전주	농구, 수영, 스쿼시, 우슈, 배구, 철인3종, 볼링, 사이클_트랙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군산	골프, 야구, 축구, 탁구	군산새만금 국제 철인3종선수권대회
익산	배구, 배드민턴, 볼링, 소프트볼, 야구, 육상_로드, 육상_트랙, 철인3종, 축구	동아시아컵 국제여자소프트볼대회
정읍	축구	광주 하계U대회 축구 경기, 아시아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김제	축구, 하키	
남원	롤러스포츠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
완주	배구, 파크골프	
무주	사이클_MTB, 태권도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진안	사이클_로드, 역도	
장수	게이트볼	
임실	사격, 양궁	국제양궁대회(유치 노력)
순창	테니스	ITF 순창 국제주니어테니스 투어대회
고창	유도	
부안	세일링	

주. 시군별 국제스포츠대회는 웹에서 검색한 뉴스를 참조하여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더 많은 스포츠대회가 있을 수 있음

[표6]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시군별 개최 종목과 시군별 국제 대회 개최 현황

- 2016년 사업의 선정기준에 따르면, 3단계 선정기준은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전체 면적이 13만km² 이상,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0.6m² 이상이어야 함. 이에 대한 시군별 실태 파악이 필요함



[그림3] 2016년 스포노믹스 육성사업의 선정기준에 따른 전라북도 시군별 현황

▣ 도-시군 협력 국정과제 공동 대응과 스포츠산업 정책 발굴

- 스포츠도시 지정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나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전략이 다른 광역시·도에 뒤처지므로 도-시군 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함. 내년 공모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이더라도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별로 스포츠도시 경쟁력을 분석하고, 특화 종목 발굴 등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여야 함
- 관련 시군에서는 전라북도의 대응전략 연구를 기반으로 시군별 스포츠도시 육성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특히 스포츠도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화종목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찾아 특화된 콘텐츠로 개발하는 시군의 노력이 필요함

[표7]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5)의 스포츠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측정지표
스포츠도시 추진기반 (정량평가)	스포츠 인프라 여건	- 주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 국내외 대회 개최 가능 공인승인 시설 수
	스포츠 참여 기반 활성화 정도	- 동호인 및 동호회 수 / 인구 1,000인 - 전문체육인수(학교, 실업, 프로) / 인구 1,000인
	활용가능 스포츠 콘텐츠 및 경쟁력	- 최근 5년간 국내외 생활체육대회 유치 실적 - 최근 5년간 국내외 전문체육대회/전지훈련 유치 실적
	스포츠도시 실현 위한 수용 태세	-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수 / 인구 1,000인 -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체 수 / 인구 1,000인
주민·지자체 및 체육단체의 추진역량 (정량평가)	주민참여 수준 및 활성화 정도	- 주 1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학생 수 / 인구 1,000인
	지자체 추진역량	- 최근 5년 평균 체육 예산 / 총예산 비율 - 체육행정조직 인력 수 / 인구 1,000인
	체육단체 추진역량	-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광장 운영회수 및 참가자수 / 인구 1,000인 - 체육단체 직원 수 / 인구 1,000인
	체육관련 전문 인력과 기관 현황	-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수 / 인구 1,000인 - 종목별 연합회 수 / 인구 1,000인
스포츠도시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 (정성평가)	계획의 전반적 타당성	- 비전 설정 및 도시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의 구체성 및 단계별 추진전략의 적정성
	특화 종목 및 분야의 적정성	- 특화 종목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현황 - 특화 종목 인프라 확보 수준과 기존 경기장 활용방안
	계획의 지속가능성	- 사업추진단 구성 계획 및 전문성 - 연차별 재정투입 및 시설투자 적절성 -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적절성
	주민참여 및 유관기관 연계협력 방안	- 주민참여 유도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 체육단체 및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 계획
사업의 파급효과 (정성평가)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 클럽 및 동호인 예상 증가 효과 - 생활체육시설 증가 효과
	특화 종목 발전 가능성	- 특화 종목 선수 및 팀 육성 가능성 - 특화 종목 전문 체육시설 증가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 스포츠 관련 산업 및 신산업 창출 효과 - 스포츠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 - 음식, 숙박시설 및 관광객 증가 효과
	도시경쟁력 제고	- 도시인지도 제고 및 도시브랜드 상승 효과 - 주민의 지역사회 관심도 및 만족도 증가 효과

자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15). 스포츠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연구.

- 2016년 추진사업 기준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는 6개 시군이 1단계 인구 기준에서 탈락함. 스포츠도시 정책이 균형발전정책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인구소멸위험 지역인 인구 5만 명 미만인 도시도 사업참여가 가능한 선정 기준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전라북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함

Summary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Sports, by Nimble Reacting to National 'Fostering Sports Cities' Policy

Se-gil Jang, Research Fellow

- Jeollabuk-do should have a mid-to long-term sports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containing a paradigm shift from emphasizing sports welfare to strengthening sport industry. Cities and counties should plan and drive sports city promotion policies and, at the same time, nimbly react to a national project(fostering region specific sports cities)
- It is expected that the 'fostering region specific sports cities' project, which is a national project, will select five cities and subsidize 5 billion korean won per year for five years including mid-term evaluation. Even though, detailed plan was not announced, it is expected tha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 tourism will resume the similar selection process which ends in 1996 that designate two sports cities (Kangneung-si, Seogwipo-si). It is advisable to seek out local responsive measures by projecting detailed future plans based on existing projects.
- In general, the local governments have jurisdiction in designation of sports city. However, local development strategies through sports in our city fall behind compared to other major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o it should be responded jointly with other urban cities. Even before the announcement of public offering plan for the next year, appropriat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Jeollabuk-do to analyze the competitiveness of sports cities by 14 cities and counties and to present strategies such as finding specialized sports.
- According to the project selection criteria in 2016, six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buk-do were eliminated from the first round, which has the criteria based on population. Emphasizing that the sports city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balanced development policy,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buk-do should work together to bring about the change in government's selection criteria so that the cities with less than 50,000 people can also participate in the project.

Keywords A Sports City,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Sports, Jeollabuk-do

ISSUE
BRIEFING 2022. 07. 19 vol.266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Sports, by Nimble Reacting to National 'Fostering Sports Cities' Policy

Se-gil Jang, Research Fellow



발행인 권혁남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9 772308 688004
ISSN 2508-688X